

“지속가능한 광주, 이런 정책 어떤가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천 복원·도로 다이어트 등 32개 정책 각 후보자에 제안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민선 7기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해 제도·기후대기·물순환·공원·자원순환·에너지·건강·사회적경제·성평등·교통·도시재생·교육 등 12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15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5차 의제(2017~2021)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광

주를 위한 12개 분야 32개 정책을 각 후보자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숨쉬기 편한 광주 조성’, ‘광주천 지류 소하천 복원을 통한 물순환 도시 조성’, ‘시민참여를 통한 공원일몰제 문제 해결’, ‘로컬푸드와 도농상생으로 건강한 광주 먹거리 구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생태교통 광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광주에너지공사 설립, 환경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운영, 광주 습지생태 기초조사 및 보전전략 수립, 광주 숲 백년 프로젝트, 빈집을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는 생활환경 재생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안서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참여한 정책위원 28명은 대부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가 높고, 2016년 협의회 5차의제(2017~2021)의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난 22년간 광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기업·행정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시민실천운동을 해왔으며, 기후변화대응, 푸른길 조성 및 앞산뒷산 네트워크 운영, 물순환 도시 만들기, 주1일 채식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왔다.

현재 111개 참여단체·기업·기관이 참여해 시민 2만여명이 참여하는 40여개의 실천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병완 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부분에서 광주가 많은 성과를 내왔고, 시민·기업·행정의 이같은 노력이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며 “정책제안을 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곧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제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사무총국(613-4173) 또는 전자메일 greengi@hanmail.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 여성 100명 한국 쌀음식 배운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주여성들이 한국형 식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의 엄마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 음식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남구·북구·광산구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명씩 총 5회 진행된다.

실습대우는 한국의 주식인 쌀을 활용한 음식문화와 실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한 쌀 요리로,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밑반찬과 소스를 활용한 요리다. 4·5월에는 남구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 ▲건강한 봄철 밥상 ‘찰밥과 취나물’ ▲은 가족이 좋아하는 ‘약고추장 비빔밥’을 배운다. 6·7월에는 북구에서 ▲어름집 입맛을 돋우는 ‘콩나물밥과 물김치’ ▲가족보양식 ‘닭죽’, 8월에는 광산구에서 추석맞이 ‘송편’을 만든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우리 쌀 사랑 서포터즈 양성 교육’의 교육생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이주여성의 멘토로 함께 만든 밥을 나누며, 한국문화를 익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노사 안전체험

광주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광중)는 15일 전북소방본부 119 안전체험관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19 안전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캠프에는 빛고을고객센터 입주사 임직원도 참여했으며, 태풍, 지진, 화재, 자동차 전복 등 재난 종합체험과 항공기안전, 완강기사용법, 암벽 등반 등 위기탈출 체험 등에 참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3월 전북소방본부와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6년 60명, 2017년 60명이 안전체험교육을 수료했다.



시장 주재 지진 대비 회의. 유정현 광주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 복합재난 토론기반훈련'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유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주의보

고열·두통·구토 증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이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잦아지면서 광주지역에서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상을 보이는 영유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바이러스성 수막염, 수족구병 등으로 내원 또는 입원한 영·유아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연중 조사하고 있다. 올해 감염실태 조사에서 4월 6.7%(45건 중 3건)에 불과했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률은 5월 첫째 주 9.5%(21건 중 2건), 셋째 주 31.6%(19건 중 6건) 등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가 모두 5세 이하의 영유아로 확인됐다.

엔테로바이러스는 고열이나 심한 두통, 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수막염과 손, 발, 구강에 수포성 병변이 생기면서 열이 나는 수족구병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인다.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면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전파경로는 직접 접촉이나 호흡기비분물(침, 콧물 등), 오염된 물, 장난감 등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엔테로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은 콕시바이러스 10건, 예코바이러스 1건이며, 소아에서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중추신경계나 폐렴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지역 유행추이를 분석한 결과 5월(64건 중 22건, 검출률 34.4%)부터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해 9월(95건 중 53건, 검출률 55.8%)까지 유행했던 만큼 올해도 본격적인 유행시기에 돌입,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 고열, 두통, 수족구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는 영유아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을 권고했다.

5·18 상처 시민 찾아가 치유한다

광주트라우마센터 17~18일 금남로 등서 운영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가폭력 생존자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오월심리치유동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오월심리치유동선센터에서 5·18을 겪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검사 결과 고위험군 증상을 보일 경우 센터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할 계획이다.

오월심리치유동선센터는 센터 개소 후 해마다 5월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매년 오월심리치유동선센터에서 광주시민들의 ‘오월 증후군’을 검사하는 설문 실시해왔다.

지난해 설문 결과에서도 광주시민들의 ‘오월 증후군’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분노, 고립감, 불안, 재경험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월 증후군은 해마다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르면서 불안하고 답답해지며 때로는 매우 강한 분노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은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이 국가폭력 생존자에게 전하는 말과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다.

오수성 센터장은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 치유작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오월심리치유동선센터를 통해 광주공동체가 국가폭력 생존자에게 안전한 치유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식품안전관리 평가’ 6년 연속 우수

광주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6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15일 “제17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월례회의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위해식품 회수 실적 ▲이물신고 처리기한 내 처리 비율 ▲식품수거 목표달성률 및 임력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율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합동단속 참여일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현장보고장비 활용률 등 식품안전관리 11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 식생활 안전과 위생 점검에 참여하는 위생공무원과 소비자직

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태블릿PC(현장보고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민·관 합동 교차단속 ▲찾아가는 식품안전진단 컨설팅(ATP 미생물측정기 활용)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감시체계 구축 등 식품안전의식을 높이는 성과도 냈다.

황인찬 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제조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촘촘하게 안전관리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식품안전관리와 위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종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